

어르신 장수사진 600명 지원... 찾아가는 돌봄 확대

나주시, 스타일링·메이크업·액자 제작까지... 어르신 삶의 순간 기록

전남 나주시가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는 장수사진 촬영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600명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배분사업으로 추진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가 협력해 진행되는 이웃돌봄사업이다. 촬영은 전문 사진작가가 직접 마을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방식으로 운영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촬영 전 과정에 전문 인력이 참여해 개인별 스타일링과 메이크업을 지원하고 촬영 후에는 액자 제작까지 완료해 전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사진 촬영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을 품격 있게 기록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는 읍면동별 추천을 통해 선정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



다. 나주시 관계자는 "장수사진 촬영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께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이영열 기자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자정결의대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는 2026년 3월 19일(목) 관내 장기요양기관 협회장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클린청구 실천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장기요양기관 협회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공단의 주요 현안 공유 및 장기요양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특히

자정결의대회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스스로 올바른 서비스제공을 위해 자율 점검하는 노력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건보공단 이영희 본부장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공급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장기요양기관도 클린청구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동참해줄 것 당부하였다. /이승원 기자

"농번기 걱정 끝!"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 제273회 활동 전개

과역면 도천리 4개 마을 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6일 과역면 도야마을회관에서 '제273회 어깨동무봉사단'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기계 수리, 방충망 보수, 전구 교체, 태양광 센서등 설치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봉사단은 현장 상황에 맞춰 분야별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에 힘썼다.

이날 현장에서는 칼집, 소형가전 수리, 이마용, 물리치료 등 30여 개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특히 농번기

를 앞두고 농기계 수리 및 주거환경 개선 분야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농기계 수리를 지원받은 한 주민은 "농번기를 앞두고 고장 난 경운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직접 찾아와 수리를 해주니 정말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공영민 군수는 "군민의 생활 속 불편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4월 9일 동강면 마륜리 5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제274회 어깨동무봉사단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보성군, 2026년 '녹차골 청춘대학' 제40기 입학식 개최

신입생 50명, 설렘 가득한 제2의 인생 '등꽃길' 올라

보성군은 지난 26일 대한노인회 보성군지회(지회장 선상규) 주관으로 노인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26년 녹차골 청춘대학 제40기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학식에는 배움에 대한 의지를 지닌 신입생 50명(남 26명, 여 24명)을 비롯해 내빈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례, 노인강령 낭독, 입학 허가 선언, 신입생 선사, 환영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녹차골 청춘대학'은 1986년 3월 개설 이후 올해로 40기를 맞은 보성군 대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자기계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교육 기반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 교육과정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노후 지원을 위해 ▲민주시민 생활 ▲교양생활 ▲안전 및 예방교육 ▲건강·노래·체조교실 등 실생활에 유익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수업은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 월 2회 진행되며,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병행해 학습 효과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졸업식을 통해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어르신들에게 공로상, 봉사상, 개근상 등을 수여하며 학습 성과를 격려할 예정이다.

정광재 청춘대학장은 환영사에서 "1986년부터 이어온 우리 대학의 역사는 여러분의 끊임없는 도전 덕분에 계속되고 있다"며 "오늘 입학한 50명의 학우가 12월 졸업식까지 낙오 없이 함께 공부하며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을 쌓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배움의 기쁨을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평생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함평군, 함평읍·엄다면 새봄맞이 일제대청소 실시

민·관 합동... 쾌적한 시가지 조성 '앞장'

전남 함평군 함평읍과 엄다면이 최근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일제대청소를 진행했다.

먼저 함평읍사무소(읍장 정화자)는 25일 함평읍 시가지 일원에서 '새봄맞이 일제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지역 주민, 함평읍사무소 직원 등 약 70여 명이 참여해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대대적인 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다.

이번 정화활동은 해방기와 봄철을 맞아 도심 환경을 정비하고, 오는 4월 개최 예정인 함평나비대축제를 앞두고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자들은 함평읍 시가지와 함평천 일대를 중심으로 담당 구역을 나눠 방치된

쓰레기와 각종 오염원을 집중 수거했으며, 마을 단위에서도 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체 환경 정비를 병행했다. 이날 대청소를 통해 약 3t에 달하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시가지 미관을 저해하던 불법 광고물 수십 건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화자 함평읍장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정화활동을 통해 함평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엄다면이장협의회(회장 윤관식)와 각 마을 주민들, 면사무소 전 직원들도 25일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2026년 깨끗한 엄다면 만들기' 새봄맞이 일제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국도 1호선 방면을 중심으로 국도 14호선 및 외곽지역의 불법 투기 쓰레기 및 불법 현수막 등을 집중 수거했다. 정동안 엄다면장은 "이장협의회 및 마을주민께서 함평 관광지의 주요 길목에 위치한 엄다면의 청결한 이미지를 위해 새봄맞이 일제대청소에 적극 참여해 주셨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엄다면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제65회 2026. 4. 10.(금) ~ 4. 13.(월)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4회 2026. 4. 22.(수) ~ 4. 24.(금)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구례군공설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

주최 전라남도체육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주관 제65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 제34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추진위원회
 후원 전라남도 / 전라남도교육청 / 구례군